

# 한류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타나는 일본 내 북한 인식의 변화

: 일본인 전문가 서면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승희 \_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목 차

- I. 서론
- II. 일본 내 한류콘텐츠 수용과 북한 이미지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북한 소재 한류콘텐츠 『사랑의 불시착』의 흥행으로 나타난 일본 내 북한의 인식변화 양상을 일본인 전문가들의 서면인터뷰로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 내 북한인식에 대해 빈곤, 비정상적 체제, 통제사회, 군사국가, 실패국가, 범죄국가 등 대부분 호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했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납치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실험 등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다. 또한 제한된 정보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함께 북한을

\* 이 논문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国際交流基金ソウル日本文化センター)와 재단법인 이회건한일교류재단(財団法人李熙健韓日交流財団)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차세대 일본연구자 국외조사 지원프로그램」(「次世代日本研究者国外調査支援プログラム」)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2월 19일 개최된 '2022 次世代日韓研究者學術大會'에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범위 확장, 남북분단 현실의 재인식, 대외관계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수용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북한은 일본인들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상(像) 외에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정보제공의 통로로서 북한사회와 현실을 이해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역할을 했지만, 기존 납치자문제 등 북한의 고질적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의 국민성과 가치관의 불변성에 근거해 허구와 현실정치영역에서의 북한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한류 드라마를 통해 북한을 인식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일본 미디어는 납치자 문제, 미사일 및 핵문제 등과 같이 국민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 존속하고 있어, 여론에 따라 북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 북한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북한 정보전달에서 새로운 포맷의 드라마가 인식 확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점에 따라, 일본 내 보다 다양한 북한정보의 균형 있는 전달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 일본

---

## I. 서론

2020년 3월 4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tvN 종영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두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에서는 “최근 남조선 당국과 영화 제작사들이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허황하고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영화와 TV극들을 내돌리며 모략 선전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sup>1)</sup>

북한이 해당 콘텐츠 내용에서 자국을 묘사한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과는

---

1)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 《우리민족끼리》, 2020.3.4.

달리, 북한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4년 드라마「겨울연가」가 이끌었던 한류 촉발 이후 새로운 한류 흐름이라고 할 만큼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소개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일본 내 팬덤 현상 등을 기사로 다루고,<sup>2)</sup> 드라마 출연진들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며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거세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도 일본에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sup>3)</sup>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한류 드라마와는 다르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재벌 딸과 북한 장교의 사랑이야기이다.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를 북한 장교가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된다는 설정에 따라 극의 배경은 대부분 북한이다. 드라마는 사실이 아닌 허구를 흥미위주로 재구성하며, 리얼리티를 전제로 있음직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의 현실을 미화 또는 폄하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고증을 통해 북한 사회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한류 드라마의 포맷을 제공한 ‘사랑의 불시착’의 일본 내 인기는 흥미롭다.

그동안 한류 드라마에 대한 선행연구는 흥행 동력이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의 제안과 전략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sup>4)</sup>

- 
- 2) 「天声人語」, 『朝日新聞』, 2020.6.14; 李香鎮, 「北のイケメン描ける時代」, 『朝日新聞』, 2020.7.31; 桜井泉, 「愛の不時着」 人気で「第4次」とも。文学の翻訳もさかんだ, 『朝日新聞』, 2020.8.11; 田中瞭子, 「自粛の日 に韓流 夢もできた」, 『朝日新聞』, 2021.9.12.
  - 3) 桜井泉, 「愛の不時着」日韓をつなぐ, 『朝日新聞』, 2020.9.8.
  - 4) 신원선, 「한류를 재점화한 <태양의 후예>의 대중화 전략」, 『한국학연구』 62권, 2017; 김정희, 「드라마<사랑의 불시착>의 흥행코드와 스토리텔링 전략」, 『글로벌문화콘텐츠』 48호, 2021; 전혜진, 「한국 방송콘텐츠의 러시아어 번역에서 현지화 전략연구」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관련 선행연구 또한 표상분석을 통해 특징을 드러내거나, 서사적 특징에서 비롯된 기존 한류드라마와의 차별성을 통해 한류 현상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sup>5)</sup>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류 드라마’라는 콘텐츠를 비즈니스적 측면이 아닌 ‘북한 배경 및 소재’의 한류 드라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일본인들의 북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북·일 관계와 일본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임에도 관련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구를 기반으로 하는 한류드라마가 현실적 문제로 대북인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일본 시청자들의 한류드라마 수용에서 한일 역사인식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는<sup>7)</sup> 드라마 소재가 일본 시청자들의 대북인식을 측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한류콘텐츠가 주는 영향력과 함께 북한 사회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하고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은 북한 인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사회 내 한류현상과 한일관계

---

K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현지화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3권 2호, 2021; 심소정, 「국내 콘텐츠의 성공 사례 분석과 그 효과에 대하여: 오징어게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8권, 2022.

- 5) 이승희, 「TV드라마 〈사랑의불시착〉의 서사 특징과 일본 4차 한류 현상의 상관관계 연구」, 『스토리&이미지텔링』 20권, 2020; 오현아, 「드라마 〈사랑의불시착〉에 나타난 이북 표상 분석」, 『先淸語文』 49권, 2021; 김정희, 「드라마〈사랑의 불시착〉의 흥행코드와 스토리텔링 전략」, 『글로벌문화콘텐츠』 48호, 2021; 최지은, 「로맨스드라마 속 역할 설정 연구: 〈사랑의 불시착〉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0호, 2021; 신희식, 「이념 논란이 희석된 남북관계 드라마 연구: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9권 1호, 2022.
- 6) 「사랑의 불시착」을 ‘북한 배경 및 소재’의 한류드라마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로는 김태훈 (2022)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상호문화역량과 통일교육적 시사점」이 있다.
- 7) 김미선·유세경, 「일본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한국 드라마 시청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5호, 2014.

및 북·일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일본인 전문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다.

## II. 일본 내 한류콘텐츠 수용과 북한 이미지

### 1. 일본 내 한류콘텐츠 수용 양상

일본에서 한국 대중문화가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일본문화방송 30주년 기념 가수 조용필 공연이 개최된 때부터이다. 이때는 음악위주로 단발성 활동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한국대중문화가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때부터이다. 이후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전후하여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우호적으로 정보를 노출하면서 한국과 문화콘텐츠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한류의 등장은 2003년 NHK에서 ‘겨울연가(冬のソナタ)’가 방영되면서 부터로, 이때 일본사회에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본격적으로 한류 붐이 시작되었다.<sup>8)</sup>

‘겨울연가’로 인한 한류 붐은 일본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 김채현(2013)은 2007년 실시한 한류 문화와 일본여성들의 현대사회 의식조사에 따르면, 한류에 대한 의견에서 ‘상호 이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흥미’, ‘노스텔지어’, ‘친구의 폭 넓히기’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상호이해의 측면에서는 역사문제로 인해 ‘거리적으로 가깝지만 교류하기에는 먼 나라’에서 ‘(거리적으로)가깝고 (생활모습도)가까운 나라’로 변화하였으며, 이

---

8) 채지영, 『일본 한류 소비자 연구: 한류 마니아와 일반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p.5-10.

‘가까움’은 일본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를 일으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방문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등 한국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당시에도 한일 관계는 역사문제로 갈등국면이었지만, 한류로 인해 일본 한류수용자들은 역사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와 함께 함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sup>9)</sup> 정수영(2011)의 연구에서도 일본 내 한류 수용자는 한류를 능동적 수용과 해석뿐만 아니라 한류 생산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팬덤을 통해 한류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0)</sup> 한류는 콘텐츠를 통해 해당 국가를 새롭게 재인식함으로써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류는 문화를 소비하는 수용자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이것이 계획적으로 의도되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이후 한류가 정착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한국 내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정책, 공급자 측의 역할이 한국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가 2003년 9월 한류마케팅 추진 기획팀을 구성하고 문화현상을 가공하여 관광, 쇼핑, 패션 등의 산업분야에서의 이윤창출에 집중하였다.<sup>11)</sup> 또한 ‘스타파워에 의존하는 제작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한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할 만큼 한류는 ‘스타 중심의 마케팅’으로, 한정된 한류스타들에게 의존했던 것이 한류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한류드라마의 주요 인기요인으로 ‘매력적인 배우 외모’(39.4%), ‘짜임

9) 김재현, 『일본 문화 소비의 이중성: 일본 사회의 한류 문화』, 제이앤씨, 2013, pp.96-117.

10) 정수영, 「일본 내 한류 지형의 탐색 및 한류 수용자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 한류 전문가와 시민 그룹 KAJA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0호, 2011, pp.207-248.

11) 히라타 유키에,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2005, p.139.

12) 김덕중 외, 『한류 노믹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7, pp.90-91.

새 있고 탄탄한 스토리'(29.0%)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sup>13)</sup> 한류 성공요인에서 스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4차 한류현상이라 불리는 일본 내 「사랑의 불시착」 열풍은 유통경로, 콘텐츠 소재, 수용자 층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 4차 한류 유통경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과거와는 달리 2020년 한류에는 TV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다.<sup>14)</sup> 과거 겨울연가가 NHK에서 방영된 반면, 사랑의 불시착은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통해 개인적 시청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발달과 보급, 플랫폼의 다양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가능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택근무 증가와 이동제한은 자연스럽게 OTT서비스 이용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 OTT방식으로 시청양식이 전환됨에 따라 수용자들의 콘텐츠 수용 양상과 환경도 달라진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왔다.<sup>15)</sup> 이러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사랑의 불시착의 흥행을 이끄는 데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북한을 배경으로 하여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의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제작 과정에서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고증을 거쳤다는 점 또한 어느 정도 북한의 현실과 사회상을 허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 그려내려 했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었다. 이 드라마 장르가 로맨스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소비층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

---

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2021, p.129.

14) 인터뷰참여자 A는 〈사랑의 불시착〉의 성공 요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2020년 한류는 더 이상 TV가 필요 없게 됐다고 답했다. “しかし2020年の韓流は、もはやテレビは必要なくなった。”

15) 강진석, 「사드사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는 시기 생성된 동아시아 한류의 변화와 그 문화공간적 함의」, 『중국학연구』 94호, 2020; 박소정·장인희·홍석경, 「일본 내 글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수용」, 『한국언론학보』 65권 3호, 2021.

남성들은 과거 한류드라마의 소비층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사랑의 불시착'의 주요 수요층으로 떠오른 것은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sup>16)</sup>

이승희(2020)는 사랑의 불시착의 서사특징과 일본 4차 한류현상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설정과 '남성시청 층'의 증가, '주체적 여성상', 웃음코드 속 일본의 '만자이(漫才)' 요소, 리얼한 북한의 일상묘사와 '쇼와 노스텔지어'<sup>17)</sup>라고 분석하였다. 중장년 남성시청 층을 유입하며 시청 층의 확대를 가져오고, 콘텐츠 내에서 일본 내 공감을 얻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인기를 끌 수 있었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4차 한류로 많은 공감을 얻으며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넷플릭스(Netflix)에서 국가별 10위권 콘텐츠에 「사랑의 불시착」이 포함되는 국가 중 일본(2,027point)이 가장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sup>18)</sup> 2020년 기준 일본 넷플릭스 인기 TV쇼 상위 10개 중 1위가 「사랑의 불시착」으로 나타났다.<sup>19)</sup> 일본의 '도쿄 국제드라마 페스티벌 어워즈(International Drama Festival in Tokyo)'에서도 해외작품 특별상(Special Award for Foreign Drama)을 수

---

16) 실제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연구 참여자 A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한류 열풍 관련 드라마의 인기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미용실에서 우연히 30대로 보이는 미용사가 잡담 속에 드라마를 언급하며 “단지 연애물이라면 도중에 질렸는지 모르지만 북한사회의 실태가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 지식면에서 흥미로웠다”라고 감상을 말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17) 이승희,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서사 특징과 일본 4차 한류 현상의 상관관계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20권, 2020.

18) 일본 다음으로 홍콩(230point), 한국(145point), 싱가포르(4point) 순으로 나타났다. 플릭스패트롤(FlixPatrol), <https://flixpatrol.com/title/crash-landing-on-you/top10/> (검색일: 2022. 6. 5)

19) 플릭스패트롤(FlixPatrol), <https://flixpatrol.com/> (검색일: 2022. 6. 5).



상하는 등 일본 내 인기를 방증하고 있다.<sup>20)</sup>

그동안 북한 또는 분단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시대 분위기,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왔다. 신호식(2022)은 남북관계 주제의 대표적인 드라마를 분석하였는데, 〈아이리스〉에서는 ‘남북 공동의 적’을 상징하였고, 〈스파이 명월〉과 〈설강화〉, 〈사랑의 불시착〉은 남녀의 로맨스에, 〈더킹 투하츠〉는 ‘비현실적 남북관계’를 상징해 판타지를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와 방식이 다를 뿐, 이 드라마들은 모두 반복주의를 회피하고 이념적 갈등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이러한 방식으로 콘텐츠 주제와 방영시점이 남북관계에 좌우되는 남북관계의 딜레마를 피해 갔다.

드라마 외에도 다양한 배경과 설정이 가능한 영화 장르에서 북한과 분단을 다룬 영화들을 찾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일본에 공개된 한국영화들 중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는 2018년 개봉한 ‘공조(2017)’, 2019년 개봉한 ‘공작(2018)’, 2021년 개봉한 ‘백두산(2019)’, ‘강철비2:정상회담(2020)’ 등이 있다.<sup>22)</sup> 이 콘텐츠들은 대부분 간첩이라는 가상적 표상을 통해 ‘분단’과 ‘북한’을 타자화하며, 남북 협력을 통해 ‘심리적 봉합’을 유발시킨다.<sup>23)</sup>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일상 모습 또한 극의 흐름을 돕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반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북한의 일상생활을 전면에 드러내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주요 무대로 활용한다. 이 드라마는 단

---

20) 国際ドラマフェスティバル in TOKYO: <https://j-ba.or.jp/drafes/archive/index28.html>(검색일: 2022.6.5.)

21) 신호식, 「이념 논란이 희석된 남북관계 드라마 연구: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9권 1호, 2022.

22)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결산』 18권, 2022, 외국영화수입배급연맹 제공.

23) 전지은, 「2010년대 간첩영화로 본 분단의 형상화 연구 - 영화 〈강철비〉와 〈공작〉은 어떻게 ‘북(北)’을 타자화하는가?-, 『한국언어문화』 70권, 2019.

순히 북한 소재를 활용한 드라마가 아니라 북한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기존 북한 관련 콘텐츠와는 차별화된다.

## 2. 일본 내 북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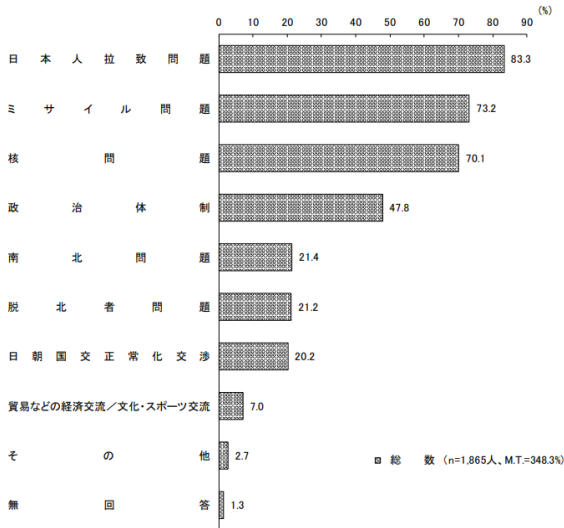
이 드라마는 북한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한류 드라마와는 차별화되는 점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인식은 이 드라마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는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대북한 인식을 형성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정학적 조건’, ‘탈식민지화’, ‘냉전’을, 이러한 일본의 대북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으로 ‘핵미사일 문제’와 ‘김정일위원장의 일본인 납치사건 인정’을 지적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가 납치와 같은 범죄를 주도하고 저지른’ 북한과 같은 국가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미지’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sup>24)</sup>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2021년 2월 내각부 정부홍보실에서 발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의 개요’에서 일본국민들의 북한관심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꼽은 사람이 83.3%로 가장 높았고, ‘미사일 문제’(73.2%), ‘핵문제’(70.1%), ‘정치체제’(47.8%)가 뒤를 이었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정치체제’를 꼽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성별측면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꼽은 사람들의 비율은 여성, ‘정치체제’를 꼽은 사람들의 비율은 남성이

---

24)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 『일본공간』 1호, 2007, pp.165-166.



〈그림 1〉 일본인의 대북 관심사항(2021, 일본 내각부 실시 여론조사)

출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의 개요 <https://survey.gov-online.go.jp/r02/r02-gaiko/gairyaku.pdf>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일본인 납치문제를 꼽은 비율은 60대, 70세 이상이었고 미사일문제를 꼽은 비율은 30대에서 높았다.<sup>25)</sup>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납치사실 인정은 의혹이 사실이 되었다. 제1차 정상회담은 일본 정부와 여론의 대북인식 악화를 더 심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sup>26)</sup>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의 북한 인식에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이 조사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일본국적을 가진 3,000명을 대상으로 외교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을 목적으로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26)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 일본여론의 대북인식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3호, 2007, p.32.

「제9회 한일상호인식조사」는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켄론NPO가 한일 양국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당사국인 한국국민의 경우 51.2%(N=1,012)였던 반면, 일본국민의 경우 62%(N=1,000)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국민의 응답에서 ‘자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지역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북한이 76.5%(N=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sup>27)</sup>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아직까지 일본이 북한을 인식하는데 ‘납치자문제’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중매체가 수용자의 이미지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어왔으며, 미디어가 시청자들에게 특정 고정관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외국의 TV드라마 시청은 해당 콘텐츠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sup>28)</sup> 이준웅(2006)은 고전적 사회심리학에서는 고정관념적 신념(stereotypical beliefs)을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함축을 담지만, 고정관념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 간 상호작용은

27) 해당 질문에 대한 보기는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인도, 베트남, 중동, 미국 EU, 기타, 무응답으로 제시됨. 동아시아연구원·켄론 NPO (2021), 「2021년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0799&board=kor\\_event](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0799&board=kor_event)(검색일: 2022.6.6.)

28) 김재휘·서종희, 「일본 TV 드라마 시청이 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미드에 대한 노출,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서구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지』, 20권 4호, 2006, pp.35-46; 문성준, 「미드에 대한 노출,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서구에 대한 고정관념」, 『언론학연구』 17권 2호, 2013, pp.5-31.

타민족에 대한 전형적/고정관념적 신념을 구성해 타민족에 대한 태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중매체는 “제한된 일상의 생활환경을 넘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았던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학습의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대중매체는 수용자에게 정보적 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인식, 감정, 태도 등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대중매체를 통해 타문화집단의 피상적 수준의 정보를 전했을 때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갖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sup>29)</sup> 미디어 텍스트를 수용하는 시청자들은 동일한 콘텐츠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해독은 다를 수 있다는 수용자들의 능동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일상을 주요 배경으로 하는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북한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연구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을 통한 일본 내 북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1) 일본 내 북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사랑의 불시착」에 나타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29) 이준웅, 「중국의 한류 현상에 대한 ‘매개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형 검증 연구: 중국인의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문화상품 이용에 따른 신념 감정, 태도의 형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2006, pp.281-284.

(3) 일본 내 「사랑의 불시착」을 통한 북한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시청경험이 있는 일본 국적의 전문가이다. 전문가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일본 내 한류 열풍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한일관계 및 북일 관계, 한반도 분단 상황 및 특수성,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직무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전문가」라고 보고 해당 선정기준에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내용과 관련한 일본 내 현상에 대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는 특정 전문성과 경력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모집단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표집방법인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전문가를 모집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학계 및 언론계에 종사하는 총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대	직업	경력
연구 참여자 A	남	30대	기자(정치외교)	8년
연구 참여자 B	남	60대	기자(한·일 문화교류, 북·일 관계)	37년
연구 참여자 C	여	40대	교수(한국어학과)	11년
연구 참여자 D	남	50대	교수(미디어 저널리즘학과)	9년
연구 참여자 E	여	50대	기자(정치외교)	31년

위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면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면인터뷰 질문은 총 10개 문항으로 주제별로 분류하면, ①사랑의 불시착 감상 및 한류 현상, ②북한에 대한 인식 ③사랑의 불시착의 인기 요인(내용적, 사회적, 대외적 측면), ④사랑의 불시착으로 인한 북한 인식 변화, ⑤북한 소재 한류콘텐츠의 영향력 및 전망, ⑥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2〉 인터뷰 질문 구성

	질문내용
1	日本国内で韓流ドラマ「愛の不時着」を御覧になった感想を記述して下さい。(일본 내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시청 소감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2	日本国内で韓流ドラマ「愛の不時着」のブームについてどの程度実感されているのか、経験事例などを説明してください。(일본 내 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열풍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실감하시는지 경험사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설명해주세요)
3	普般、北朝鮮に対する考えと認識について自由に語ってください。(평소 북한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4	現在感じている北朝鮮に対する日本社会の認識について自由に説明してください。(현재 느끼고 계시는 북한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해주세요)
5	韓流ドラマ「愛の不時着」が日本で人気を集めた要因について、内容的側面(コンテンツ)から記述して下さい。(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내용적 측면(콘텐츠)에서 기술해주세요)
6	韓流ドラマ「愛の不時着」が日本で人気を集めた要因について、社会的側面(日本の社会的環境)から記述してください。(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사회적 측면(일본 사회적 환경)에서 기술해주세요)
7	韓流ドラマ「愛の不時着」が日本で人気を集めた要因について、対外関係の側面(日韓関係及び日朝関係)から記述してください。(한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대외관계 측면(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에서 기술해주세요)
8	該当コンテンツによって北朝鮮を認識する上で変わった点があれば、どのような側面で違いを認識をし、そのように認識した理由について具体的に記述してください。(해당 콘텐츠로 인해 북한을 인식하는데 있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인식했고, 그렇게 인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질문내용	
8-1	(8番の質問に答えた場合は回答を除く) 該当コンテンツによって北朝鮮を認識する上で変わった点がなければ、そのように認識した理由について具体的に記述してください。 (8번 문항에 답한 경우 답변 제외) 해당 콘텐츠로 인해 북한을 인식하는데 있어 달라진 점이 없다면 그렇게 인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시오)
9	今後、北朝鮮を素材とした韓流コンテンツが北朝鮮認識に及ぼす影響、北朝鮮を素材とした韓流コンテンツの可能性について、様々な側面から記述してください。 (향후 북한을 소재로 한 한류 콘텐츠가 북한 인식에 미칠 영향, 북한 소재 한류콘텐츠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
10	貴方の情報を記入してください。(귀하의 정보를 기입해주시시오)

구성된 질문지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서면인터뷰 질문지를 통한 서면인터뷰는 1회 진행되었으며, 응답내용에 따라 확인 및 질의가 필요할 경우 메일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일본 내 북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일본사회의 북한 인식에 대해 빈곤, 비정상적 체제, 통제사회, 군사국가, 실패국가, 범죄국가 등 대부분 호전적,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인터넷 상에서의 희화화,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포정치 속 북한의 체제존속과 안정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리더십의 영향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를 컨트롤하는 통제사회의 이미지가 강하다.

www.kci.go.kr



(중략) 국가 전체가 「빈곤」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전문가 A)

“북한이라 하면 김정은이나 김여정 독재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북한에 좋은 인상을 가진 일본인은 없다. 독재와 군사국가, 미사일, 핵실험, 실패국가라는 이미지다. 나도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 (중략) 3대 세습이라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체제다. 또 일본인을 납치한 범죄국가이기도 하다.”(전문가B)

“그만큼의 경제제재를 받고 사람들의 생활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위협을 강조하든가, 재미있게 무시하든가 하는 양극단” (전문가C)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정면으로 응시하려는 동기 부여는 어렵다고 느낀다. (중략) 특히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우습게 다루는 경향이 계속되며 그것도 일본인이 무관심하다는 증거일 것이다.”(전문가 D)

이러한 일본 내 북한인식의 기저에는 납치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실험 등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으며,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보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함께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이 베일에 싸인 북한의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무관심으로 인한 희화화와 조롱, 낮은 역사인식과 책임 부재로 인한 차별과 무시 등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하였다.

“일본 정부는 「납치·핵·미사일」의 「포괄적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납치 문제일 것이다. 다수의 일반시민을 납치한 충격은 컸고 일본인이 북한을 야만적인 나라, 무서운 나라로 인식하는 큰 요인이다. 또 잇따른 핵실험이나 동해의 미사일발사 실험 등을 통해 언제 무엇을 해 올지 모르는 호전적인 나라라는 의식이 뿌리 깊다.” 무지에서

www.kci.go.kr

생기는 공포 :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언론을 통한 정보다. “진짜 북한이란 무엇인가”를 알 길이 없다. 이 때문에 언론이 흘리는 납치문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북한 내 숙청 등의 뉴스로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모른다.”, “알 수 없다.”에서 오는 공포를 느끼는 일본인은 많을 것이다.”(전문가 A)

“다만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도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과 협박, 헤이트스피치는 허용되지 않는다.”(전문가 B)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중략) 일본의 조선학교=북한이라는 민족교육의 경위를 무시한 단순화.”(전문가 C)

“2002년 김정일이 납치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한 이후 납치문제가 북한 인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략) 1970년대 납치사건은 평시의 주권침해였으며 30년 이상 방치되면서 「일본의 안전신화」가 무너졌다는 일본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 트라우마가 배경에 있다.” (전문가 E)

## 2. 「사랑의 불시착」을 통한 북한 인식

### 1) 북한에 대한 인식범위의 확장

연구 참여자들은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일본 내 인기요인으로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 ‘일상생활’을 다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고증을 통해 객관적 묘사를 시도한 점과 북한 관련 콘텐츠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북한의 일상과 사회문화를 다루면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제시한 점을 높이 샀다.

“(상략)객관적 사회모사가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일상에 대해 이처럼 세

www.kci.go.kr

심하게 묘사한 드라마는 드물어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중략)탈북자 등 경험자와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연출로 베일에 싸여 있는 북한사회의 실체에 접근했다. (중략) 단순히 가난한 사회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택시 등이 보급된 실태도 그려져 있어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느낀 시청자도 많을 것이다. 고층아파트군은 일본 언론보도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내부구조나 거주자의 생활이 보도될 기회는 거의 없어 시청자들에게 의외성을 줬다. (전문가A)

“북한이라 하면 김정은이나 김여정 독재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전문가 B)

“남북의 벽을 넘어선 사랑이야기라는 기존 드라마에 없던 발상의 히트로 느껴졌다. 제작진이 탈북자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취재해 북한의 마을과 암시장이 생생하게 재현됐고, 북한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북한 사투리를 상당히 연습한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평양에서 동주 모녀가 등장하고 북한에서 출현한 새로운 시민의 모습도 소개되고 있다.”,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사람이 인간적, 긍정적으로 그려진 점은 일본인에게는 신선했다.” (전문가 D)

“북한병사들도 그다지 가부장적이지 않고 무해하다는 점도 호감을 샀다.” (전문가 E)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북한을 배경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주요 배경이 된다. 이전시기까지 북한 관련 영상콘텐츠는 북한을 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간첩, 탈북민을 소재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영화의 경우 반공영화, 전쟁영화, 분단영화를 거치면서, 분단이라는 역사의 산물로 북한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구성해왔다.<sup>30)</sup>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

30) 변재란, 「남한영화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이해: 〈쉬리〉, 〈간첩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16호, 2001, p.271.

은 사회문화로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동안 고정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이탈주민 작가가 드라마 시나리오작업에 참여하면서 북한 배경과 내용에 대한 고증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터뷰가 진행되었다고 알려졌다.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북한이라는 공간이 자칫 판타지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사전 작업 과정이 있었기에 수용자들이 느끼는 다소 생소한 북한 사회상과 내부 모습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이해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는 일정 정도 사실 기반의 ‘픽션’을 그려냄으로써, 정보전달의 효과성을 지닐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사전 고증 작업의 진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진술했다. “과거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에 비해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던 것은 (사전 고증작업을 진행한 사실기반의 드라마)이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연구참여자 A)” 답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오리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이 다른 한류 드라마와 달리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이유를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 ‘남북분단의 배경’이라는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up>31)</sup>

## 2) 남북분단 현실의 재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에서 남북 분단으로 나타나는 지점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족, 분단, 통일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연애 이야기로 일관한 점이 몰입감을 높이고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족, 분단,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

---

31) 이승희,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서사 특징과 일본 4차 한류 현상의 상관관계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20권, 2020, p.235.

만 이야기 전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분단으로 인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콘텐츠에서 북한을 적,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그리고 민족, 분단, 통일을 다뤘을 때 민족상잔의 아픔과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새드 엔딩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친근하게 그리고 결말에서도 평화공존의 성립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해 재인식하며 남북관계에서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방향성의 가능성과 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에 있으면 실감할 수 없는 남북분단 현실이 비현실감을 놓고 오락작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인 낭만을 연출했다. 드라마처럼 만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생소하고 신선하게 비쳤다.” (전문가 A)

“남북한 남녀의 연애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재미있다.” (전문가 B)

“신분차이, 질병과 같은 뻘한 연애장애에 대해서 분단국가라는 것은 새롭고, 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드라마틱하게 비친 것은 아닐까.” (전문가 C)

“더욱 특징적인 것은 이 드라마는 38도선의 남과 북을 무대로 하면서 「민족」, 「분단」, 「통일」과 같은 중량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람이 인간적, 긍정적으로 그려진 점은 일본인에게는 신선했을 것이다. 또 스토리로서 순수한 연애 이야기로 일관한 것도 일본에서 성공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민족」이나 「분단」,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일본인에게는 한국인 이상으로 관심 밖의 일이어서 질러버렸지 않았을까.” (전문가D)

“지금까지의 남북 간 연애 드라마는 「쉬리」도 「이중간첩」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비련의 형태로 밖에 남북 간의 연애는 성립되지 않았다. 「사랑의 불

시작」은 윤세리가 북한의 일상생활을 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 참신하지만 후반부 리정혁이 한국을 수용하려는 상호인증의 모습을 유머 있게 그리고 있다. 마지막에도 양측의 체제나 가족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남겨둔 채 평화공존이 성립된다는 전제에 가장 놀랐다. 통일되지 않고도 남북 커플이 장거리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고 그것을 한국사회가 재미 있어 한다는 것도 놀랐다.”(전문가 E)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를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가 아닌 ‘남한이 쓴’ 이야기에 집중했다. 드라마 콘텐츠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드라마에 투영되어있는 시각과 관점, 즉 남한이 바라본 북한의 시각을 의식하고 집중해서 시청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제한되고 다소 편향되게 정보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드라마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습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드라마의 주된 목적은 정보전달보다 즐거움이고, 드라마는 허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동기가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한 목적이 될 순 없다. 하지만 드라마가 픽션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고증을 거쳐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 시청자들은 보다 신뢰성을 가지고 드라마 속 북한 배경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드라마에 더 몰입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정보는 허위정보, 확인할 수 없는 정보 등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콘텐츠의 경우에도 허구라고 일반적으로 전제하에 시청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려진 북한 배경은 배경지식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 수 없고 그저 시청자에게는 상상속의 공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때 고증작업을 거쳐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 한 구성이었다는 점에서 정보로서의 가치와 호기심이 증폭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

에서 제작된 북한관련 드라마는 주제와 설정이 지극히 한정적이었고, 콘텐츠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해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동안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에만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의 자체제작 드라마에서 북한은 흥미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이 특정 이미지로 그려지며 고정관념이 더 고착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정치, 안보에 국한되었던 북한정보가 드라마를 통해 주제가 북한 일상생활로 확장되면서 ‘일상’과 ‘사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범위도 함께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북한을 소재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냉정하게 그리는 드라마를 당연한 것처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느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넓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 북한을 여유롭게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은 가공할 적국이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며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게 됐다. (중략) 다만 한국인이 북한에 대한 우월의식은 굳어지지 않았다. 냉정하고 없는 거 등 탈북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전문가 B)

“이제 한국에서 북한을 이렇게 다루는 드라마를 방송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첫인상.”, “『사랑의 불시착』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북한은 이렇게구나!’라기보다는 ‘한국은 북한을 이렇게 그리는구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 C)

“이 드라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의 경제격차가 웃음거리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비하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가 낙후된 북한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소박한 사람들로 유머러스하게 묘사한다. 서울에 온 북한군 4인조가 사이클론 청소기를 보고 놀라는가 하면, 윤세리가 「가져갈 수 있으

면 사주는 건데」라고 말하기도 하고 4인조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수도에서  
온수가 안 나온다」고 투덜거리는 등 많은 장면을 들 수 있다.” (전문가 D)

### 3) 대외관계와 상관없이 수용되는 콘텐츠

한일관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외교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  
민들에게 이러한 한일 간 대립 양상과 관계악화 국면은 낯설지 않다. 북일 관  
계 또한 일본인 납치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존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북일 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로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일본에서 북한문제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 오히  
려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만약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반발이 컸  
던 시기였다면 드라마는 흥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답변은(전문가 D), 일본  
에서 북한문제가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북한관련 인식과 콘  
텐츠 소비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슈로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북  
한의 지도자(김정은)를 북한 이외의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  
며 북한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략) 일종의 관계악화 피로다. 신형 코로나의 감염확대에 의해서 사  
람의 왕래나 외교가 정체되고 있는 것도 겹쳐 일본 내에서는 「혐한」을 넘어  
정치 문제에의 “passing”현상(=무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뒤집어 보면 정치  
적 정세와 상관없이 좋은 것은 좋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은 아닌가.” (전문가 A)

“한일관계도 북일관계도 이 드라마의 유행과는 관계가 없다. 이제 한류는



정치외교와는 상관없이 재미있으면 일본에서 수용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은 북한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심리로서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나 남북한교류에 대해 조금은 들여다보고 싶은 심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B)

“한일관계는 징용공문제로부터의 무역규제, 한국에서의 위안부재판 등을 둘러싸고 뒤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사랑의 불시착」 인기의 배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납치문제의 미해결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조차 좌절된 상황에서 북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대외관계 측면과는 거의 관계없는 듯한 것이 오히려 특징 아닌가?” (전문가 C)

“일본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랑의 불시착」이 환영받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일본인 납치문제로 북한에 대한 반발이 특히 컸던 시기였다면 이 드라마는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Netflix도 일본에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의 한일관계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서브컬처는 정치·외교와 관계없이 상호 교류가 가능하며 일본에서의 「사랑의 불시착」의 히트는 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서브컬처에서는 드라마나 K-POP 이외에도 최근에는 한국 소설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략) 이러한 서브컬처 전체에서의 한류 콘텐츠 확산은 「사랑의 불시착」 인기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전문가 D)

“한일관계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도 일본에서는 항상 드라마 팬은 뿌리내리고 있었으므로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 단지 모테기(茂木)외상이 「모두 보았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외교나 비즈니스 관계자에게 화제 만들기의 계기를 준 측면은 있었다.” (전문가 E)

그럼에도 외교관계와는 별개로 문화가 향유될 수 있다는 평가가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가 제한되어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인들에게 가상의 국가였던 북한은 현실 속 국가가 될 수 있었다(전문가 A). 이러한 북한의 행보로 일본에서도 북한을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프레임으로 응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북한 관련 TV프로그램이 독재군사국가, 납치문제로 한정적이었던 배경에서 '사랑의 불시착'의 북한남녀의 연애라는 설정은 신선하게 다가왔다(전문가 B)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사랑의 불시착 열풍 이전에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한국소설 등의 서브컬처에서의 한류콘텐츠 확산도 사랑의 불시착 인기를 부추기는 효과로 평가했다(전문가 D).

이렇듯 사랑의 불시착을 포함한 최근 한류의 경우 대외관계,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문화콘텐츠가 수용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치적 대립이 퇴색된 분위기를 고려하자면 북한 관련 이슈와 관련 콘텐츠 수용의 관계는 계속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 3. 「사랑의 불시착」을 통한 북한인식의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잖이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드라마에서는 평양에서 스마트폰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시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북한에서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외국으로부터 일정규모의 물건 유통이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택시가 평양 시내를 오가는 모습도 신선했다.”(전문가 A)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또 북한도 계급사회에서 특권층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속 세계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일본인에게 북한은 납치국가요, 독재국가요, 미사일과 핵의 군사국가다.”(전문가 B)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북한을 인식하는 데 달라진 점이라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정말 개성-평양 간의 기차는 정전으로 몇 시간씩이나 멈추는가.’, ‘평양 부자들은 개 대신 타조를 기르는가.’, ‘조개구이 맛있겠다.’와 같은 의미에서 정치나 경제 분야에 머물지 않는 인식의 폭, 범위는 넓어진 것 같다.” (전문가C)

“드라마는 픽션이고 그에 따라 실제 북한 인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전문가 E)

그동안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북한 사회와 주민의 모습은 지방의 ‘빈곤’을 묘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 사회 내부모습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고 편향적인 상황에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호화로운’ 평양의 모습을 비추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다룬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북한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기에 충분했다.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드라마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언급했다.<sup>32)</sup>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동시에 드라마는 픽션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미위주의 허구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드라마를 통해 북한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먼저 일본 내 미디어를 통한 정보제공의 한계로 인해,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북한소재의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콘텐츠가 정보제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를 통해 호기심을 느끼지는 몰라도 콘텐츠는 콘텐츠로서만 존재할 뿐, 이것이 실제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에는 영향을

---

32) “정치나 경제 분야에 머물지 않는 인식의 폭, 범위는 넓어진 것 같다(政治や経済分野にとどまらない認識の幅、範囲というものは広がった気がする。)”(전문가 C)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일본 국내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북한정보의 제공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작품이 일본인의 북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도 북한생활을 배울 일은 없고 영상작품이 북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요소를 차지한다. 다만 여전히 일본인의 북한 인식은 납치·핵·미사일의 이미지가 매우 강해 국가 자체에 대한 인상이 뿌리째 바뀌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 A)

“다만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 성공했다고 해서 북한을 주제로 한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성공하겠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략) 다양한 한류 드라마의 한 장르일 뿐이다. 애당초 일본인은 북한에 그다지 뜻이 없으니까.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전문가 B)

“지금까지 북한을 소재로 한 한류 콘텐츠는 대개 간첩을 주인공으로 한다든가 북한사회의 비참함을 강조하는 양상이었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이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불시착」 같은 콘텐츠는 북한에 대해 스테레오타입적인 인식틀 외에도 다양한 인식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문가C)

“일본인에게 북한은 최후의 비경과 같은 것이다. 거의 100%의 일본인은 북한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고 실제 모습이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진지한 관심은 낮아도 호기심의 대상은 되는 게 사실. 따라서 북한이 일본 본토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없는 한 북한을 무대로 한 콘텐츠는 계속 매력적일 것이다. (중략) 다만 대박을 터뜨린 「사랑의 불시착」으로도 일본인들의 대북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북한을 소재로 한 한류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진다 해도 일본인들의 대북 인식에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D)

“좋은 나쁜 북한을 소재로 한 한류 드라마를 소비하는 일본인들은 드라마틱한 설정을 원하는 것이지 북한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나 사회변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경과 다큐멘터리를 본다. 픽션을 현실정치와 혼선시킨 논의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하락)” (전문가 E)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일본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전문가 C는 북한을 기존과는 다르게 접근한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콘텐츠가 한국이 통일을 향해 북한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이해당사국의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국한된 문제로 평가했다. 전문가 E의 경우, 드라마가 주는 북한의 인식 분석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 안되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현실정치와 혼선시키는 논의로, 프로파간다로 연결되므로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 고증을 거쳤다 해도 드라마는 가상세계를 창작한 허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콘텐츠를 통해 수용자들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북한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됨으로써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계기로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북한 소재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의 인식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확고한 북한 인식에 따라, 정치와 콘텐츠는 별개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V. 결론

이 글은 한류콘텐츠의 성공요인을 따져본다거나 새로운 한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북한인식 제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류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나 특징 등은 이미 많은 언론과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소재와 배경으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의 삶과 사회모습을 드라마로 그려냈다는 점에 집중해 북한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북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 만큼 북한과 관련된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본인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데 충분한 배경지식과 분석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북한 소재의 한류 콘텐츠를 통해 일본의 북한 인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일본인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 소재의 콘텐츠가 기존에 일본 내에서 북한 정보가 다루어졌던 방식과는 달랐다는 점에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 정보의 허구가 중심이 되는 콘텐츠를 통한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며, 드라마를 통한 북한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 또한 일반 대중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일본사회를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및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일본 내 북한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북한을 빈곤, 비정상적 체제, 통제사회, 군사국가, 실패국가, 범죄국가 등 대부분 호전적,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납치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실험 등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었으며,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보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함께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터넷 상에서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북한을 인식하는데 있어 인식범위의

확장, 남북분단 현실의 재인식, 대외관계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수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틀 외에 다양한 인식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정치나 경제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식의 폭, 사고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북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으면서 일본 내 북한관련 이슈도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이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북한은 베일에 싸인 존재였지만,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의 베일을 걷고 정치외교안보적 측면에서만 강조되었던 북한의 이면을 들추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내 고착되어 있는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와 북한 콘텐츠에서 통용되는 분단의 아픔과 슬픈 결말에서 벗어나, 통일이 되지 않고도 체제와 분단에 상관없이 평화가 공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새로운 결말을 제시한 것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새롭게 받아들였다. 일본 내에서는 북한 관련 콘텐츠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에 일본 내 북한 인식은 제한적이고 부정적 이미지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 안보에 국한되었던 북한 정보가 드라마를 통해 북한 일상생활로 확장되면서 ‘일상’과 ‘사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범위도 함께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드라마에 투영되어있는 남한의 시각과 관점에 집중하여 드라마를 통해 남한이 바라보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관계악화의 정치피로감으로 대외관계와는 별개로 문화콘텐츠가 수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치적 대립이 퇴색된 분위기를 고려하자면 북한 관련 이슈와 관련 콘텐츠 수용의 관계는 계속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세 번째,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 인식의 변화 측면에서 북한 사회와 일

상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통로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실상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를 통해 호기심을 느낄지는 몰라도 이것이 실제 북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사회, 현실, 실체에 대한 호기심 증폭으로 북한사회를 더 가깝게 느끼고 있지만, 기존 납치자문제 등 북한의 고질적 이슈는 근본적으로 인식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이해당사국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로 평가했다. 또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식확장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본 내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북한과 관련된 것은 철저히 현실정치와 결부 짓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에서 실시하는 「日本人の国民性調査(일본인의 국민성조사)」 결과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조사에서 일본인들은 개인의 권리보다 공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경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sup>33)</sup> NHK가 실시하는 「日本人の意識(일본인 의식)」 조사에서도 일본인의 자국에 대한 애착심

33) 이 조사는 통계수리연구소가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일본인의 견해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일본인의 국민성 제14차 전국 조사 결과의 개요」는 2018년 9월 말 기준 일본국민 20세 이상 84세 이하 6,4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개인의 행복(#7.4 日本と個人の幸福)’ 관련 질문에서는 ‘일본이 좋아지는 것과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은 같다’라는 답변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1958년(34%)부터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익과 개인의 권리(#7.5b\*, 公益と個人の権利)’ 관련 질문에서는 해당 질문이 설문조사에서 실시된 모든 기간 동안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다소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응답(2013년, 38%)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다소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응답(2013년, 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속되었다. 国民性調査委員会(2018), 統計数理研究所国民性調査委員会 「日本人の国民性調査」, [https://www.ism.ac.jp/survey/index\\_ks14.html](https://www.ism.ac.jp/survey/index_ks14.html)(검색일: 2022.6.5.)



과 자신감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국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애국심 또는 애착심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밝힌 2007년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보아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또한 2021 해외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sup>36)</sup> 한국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인도(77.6%), 태국(75.8%), 인도네시아(74.0%), 베트남(73.4%) 등 동남아 국가의 긍정 변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유럽(48.7%)과 일본(28.2%)은 낮게 조사됐다.<sup>37)</sup> 긍정 인식변화 비율이 전체 조사 국가 중 일본이 가장 낮았으며,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은 응답자가(46.2%)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8)</sup> 국가별 한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용 집중도와 이용다양성 분포도에서도 일본은 전체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지표

34) 이 조사에서는 정치, 민족주의 등의 가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선거, 시위, 여론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과 의견이 국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설문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장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인의 자국에 대한 애착심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자신 또한 '일본인이 다른 국민에 비해 매우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일류국이다' 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荒牧 央 · 村田ひろ子 · 吉澤千和子 (2019), 「45 年で日本人はどう変わったか (2) ~第10回「日本人の意識」調査から~」 [https://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90601\\_6.pdf](https://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90601_6.pdf)(검색일: 2022.6.5.)

35) 이이범, 「전후 일본인들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고찰: 일본인의 국민성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15권, 2004, pp.37-66.

36) 이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전 세계 18개국(중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호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 러시아, 터키,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15세~59세 성인 남녀 중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조사이다.

37)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1 해외한류 실태조사』, 2021, p.9.

38) 위의 책, p.71.

를 보이며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국문화 선호가 강한 특성이 나타났다.<sup>39)</sup>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호기심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 콘텐츠를 통한 북한인식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개인이 느낀 호기심, 흥미 등의 새로운 감정은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국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의 국민성과 가치관의 불분성에 근거해 허구와 현실정치영역에서의 북한을 구분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드라마는 판타지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던 북한의 내부,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을 고증을 통해 구현하였다는 점은 신뢰를 얻어 수용자들을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소재나 관점의 측면에서 그동안 북한을 다뤘던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에(정치군사안보에서 사회문화로, 일상생활을 보여준 점) 기존에 일본에서 북한을 보여주는 방식의 큰 틀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 되었고 드라마는 일정정도 정보 제공의 역할을 통해 기존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부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북한을 “최후의 비경(最後の秘境)”<sup>40)</sup>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그동안 일본에게 북한은 상상속의 나라의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를 생산해내고 정보를 전달하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한 내용에서 일본 미디어는 북한 이미지를 설정하고 프레임화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미디어는 납치자 문제, 미사일 및 핵문제 등과 같이 국민의 안보

---

39) 위의 책, p.53.

40) “일본인에게 북한은「최후의 비경」과 같은 것이다.(日本人にとって北朝鮮は「最後の秘境」のようなものである。”(연구참여자 D)

와 직결된 사안이 존속하고 있어, 국민여론에 따라 북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 북한 관련 정보부족과 함께 북한관련 정보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북한프레임의 생성 또한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내 제한된 북한 정보 제공과 재현방식은 수용자들에게 북한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 소재 한류콘텐츠 「사랑의 불시착」의 흥행으로 나타난 일본 내 북한의 인식변화 양상을 일본인 전문가들의 서면인터뷰로 큰 흐름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이를 통해 북한 인식 형성을 분석하는데 외교관계와 역사적 상황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정보전달에서 새로운 포맷의 드라마가 인식 확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점에 따라, 일본 내 보다 다양한 북한정보의 균형 있는 전달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콘텐츠가 흥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OTT서비스를 통한 유통방식의 변화였다. OTT 서비스로의 플랫폼 발전은 기존에 공영방송을 통해 송출되었던 경로에서 새로운 한류의 유통방식을 가져왔다. 수용자들은 ‘충족’을 위해 자발적인 선택으로 ‘탐색’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일본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은 한일관계에 따른 국민여론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OTT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취사선택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도 해외콘텐츠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인식하고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본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떤 요인을 통해 형성되는지, 어떠한 요인이 북한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본 미디어가 어떻게 북한 프레임 생성해내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볼 것이다. 향후 연구 진행 시 본 연구에서 한계로 남았던 점을 보완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 정도 외에 중시청자가 가질 수 있는 행동양식과 문화소비 양상 등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2년 4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22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6월 13일

## 참고문헌

### 1. 논문

- 강진석, 「‘사드사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는 시기 생성된 동아시아 한류의 변화와 그 문화공간적 함의」, 『중국학연구』 94호, 2020.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 『일본공간』 1호, 2007.
- 김미선·유세경, 「일본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한일 역사 인식에 따른 한국 드라마 시청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5호, 2014.
- 김재휘·서종희, 「일본 TV 드라마 시청이 일본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미드에 대한 노출,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서구에 대한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지』 20권 4호, 2006.
- 김정희, 「드라마〈사랑의 불시착〉의 흥행코드와 스토리텔링 전략」, 『글로벌문화콘텐츠』 48호, 2021.
- 문성준, 「미드에 대한 노출, 주인공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서구에 대한 고정관념」, 『언론학연구』 17권 2호, 2013.
- 박소정·장인희·홍석경, 「일본 내 글로벌 SVOD 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수용」, 『한국언론학보』 65권 3호, 2021.
- 변재란, 「남한영화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이해: 〈쉬리〉, 〈간첩리철진〉, 〈공동경비구역 JSA〉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16호, 2001.
- 손영주, 「북한의 일본인납치문제: 일본여론의 대북인식 및 일본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3호, 2007.
- 신원선, 「한류를 재점화한 〈태양의 후예〉의 대중화 전략」, 『한국학연구』 62권, 2017.

- 신호식, 「이념 논란이 희석된 남북관계 드라마 연구: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9권 1호, 2022.
- 심소정, 「국내 콘텐츠의 성공 사례 분석과 그 효과에 대하여: 오징어게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8권, 2022.
- 오현아, 「드라마 〈사랑의불시착〉에 나타난 이북 표상 분석」, 『先淸語文』 49권, 2021.
- 윤경원, 「일본 드라마 수용자의인터넷 활용과 문화적 실천」, 『한국방송학보』 21권 4호, 2007.
- 이승희, 「TV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서사 특징과 일본 4차 한류 현상의 상관관계 연구」, 『스토리엔이미지텔링』 20권, 2020.
- 이이범, 「전후 일본인들의 가치관 변화에 관한 고찰: 일본인의 국민성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15권, 2004.
- 이준웅, 「중국의 한류 현상에 대한 ‘매개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효과 모형 검증 연구:중국인의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문화상품 이용에 따른 신념 감정, 태도의 형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2006.
- 전지은, 「2010년대 간첩영화로 본 분단의 형상화 연구-영화 〈강철비〉와 〈공작〉은 어떻게 ‘북(北)’을 타자화하는가?-」, 『한국언어문화』 70권, 2019.
- 전혜진, 「한국 방송콘텐츠의 러시아어 번역에서 현지화 전략연구: K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 현지화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3권 2호, 2021.
- 정수영, 「일본 내 한류 지형의 탐색 및 한류 수용자의 문화적 실천에 관한 연구: 한류 전문가와 시민 그룹 KAJA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미

디어, 『젠더&문화』 20호, 2011.

최지운, 「로맨스드라마 속 역하렘 설정 연구: 〈사랑의 불시착〉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0호, 2021.

## 2. 단행본

김덕중 외, 『한류 노믹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7.

김채현, 『일본 문화 소비의 이중성: 일본 사회의 한류 문화』, 제이앤씨, 2013.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2021 해외한류 실태조사』, 202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결산』 18권, 2022.

채지영, 『일본 한류 소비자 연구: 한류 마니아와 일반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글로벌 한류 트렌드 2021』, 2021.

히라타 유키에(平田紀江), 『한국을 소비하는 일본: 한류, 여성, 드라마』, 책세상, 2005.

## 3. 기타

동아시아연구원·겐론 NPO (2021), 『2021년 제9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0799&board=kor\\_event](http://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0799&board=kor_event)(검색일: 2022.6.6.)

内閣府政府広報室,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の概要』. <https://survey.gov-online.go.jp/r02/r02-gaiko/gairyaku.pdf>(검색일: 2022.1.10.)

国際ドラマフェスティバル in TOKYO: <https://j-ba.or.jp/drafes/>

www.kci.go.kr

archive/index28.html(검색일: 2022.6.5.)

国民性調査委員会 (2018), 統計数理研究所国民性調査委員会「日本人の国民性調査」, [https://www.ism.ac.jp/survey/index\\_ks14.html](https://www.ism.ac.jp/survey/index_ks14.html)(검색일: 2022.6.5.)

荒牧 央·村田ひろ子·吉澤千和子 (2019), 「45 年で日本人はどう変わったか(2) ~第10回「日本人の意識」調査から~」 [https://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90601\\_6.pdf](https://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90601_6.pdf)(검색일: 2022.6.5.)

田中瞭子, 「自粛の日に韓流 夢もできた」, 『朝日新聞』, 2021.9.12.

「天声人語」, 『朝日新聞』, 2020.6.14.

桜井泉, 「愛の不時着」人気で「第4次」とも。文学の翻訳もさかんだ, 『朝日新聞』, 2020.8.11.

李香鎮, 「北のイケメン描ける時代」, 『朝日新聞』, 2020.7.31.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 《우리민족끼리》, 2020.3.4.

플릭스패트롤(FlixPatrol), <https://flixpatrol.com/title/crash-landing-on-you/top10/> (검색일: 2022. 6. 5).



Abstract

## Changes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in Japan from the Korean Wave drama “Crash Landing on You”

Ha Seunghee

The research is based on a written interview with Japanese experts about the changing perception of North Korea in Japan, which emerged from the box office of the Korean Wave content “Crash Landing on You” in North Korea. The researchers evaluated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in Japan as negative, including poverty, abnormal systems, controlled societies, military states, failed states, and criminal states. Underlying this perception was the trauma of the abduction issue and the anxiety and fear of security threat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tests. It was also found that restricted inform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orth Korea’s negative perception along with stereotypes about North Korea. In Japan, “Crash Landing on You” has expanded its perception of North Korea, reacknowledging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allowing content to be accommodated regardless of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It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Japanese to realize that North Korea exists in a more diverse way, in addition to its stereotyped image through “Crash Landing on You”. The “Crash Landing on You” served as an information channel to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and reality and arouse curiosity, but there was no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North Korea's chronic issues such as the existing abduction issue.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they distinguish North Korea in the realm of fiction and real politics based on the Japanese people's unchanging character and values.

The Japanese media had no choice but to limit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 according to public opinion a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such as the abduction issue, missile, and nuclear issue, continued. As such, the lack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 in Japan has led to a limitation that can only be biased. Given that the new format of the drama has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expansion of awareness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deliver more diverse information on North Korea in Japan, and the role of the media is important here.

Key words

Korean Wave, Drama, Crash Landing on You, North Korea, Japan